

다케시마에 상륙한 한국 의원에 보내는 공개질의문

의원님께서 한국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10 월 22 일 한국 국회의원들께서 다케시마에 상륙 했습니다. 우리는 일·한관계의 근본적인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단호히 항의합니다.

또한 올해는 일한양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1998 년 “일한파트너십선언”으로부터 20 년을 맞이하는 기념할 만한 해이며, 이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정상들을 비롯한 양국 정부 간, 민간 사이에서 미래지향적인 일한관계 구축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10 월은 20 주년을 맞이한 달로 일한 양국에서 기념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강행된 이번 행위는 “일한파트너십선언”의 정신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과 양호한 양국관계를 바라는 많은 양국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전후 일·한의 불행한 시대는 1952 년 1 월 18 일에 한국 정부가 공해상에 ‘이승만 라인’ 을 설정한 것으로 시작하여 1954 년 12 월 ‘어업 보호법’ 을 제정해 일본 어선을 나포해 일본 어선원의 인권을 무시한 억류 생활을 강요함으로써 결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 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는 한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거되었습니다.

또한 2012 년 8 월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케시마에 상륙한 후에도 다케시마에 대한 새로운 시설 정비와,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다케시마 상륙,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의 방위훈련 실시 등을 비롯하여 모든 수단으로 다케시마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다케시마 상륙 사안이 어떠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해석에 따라 행해졌는지, 당사자인 귀하에게 직접 질문하기 위해 이 공개질의문을 보내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한국 영토이다” 라고 해 왔으나, 아직도 명백하다는 설명 및 증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와 근거에 기반을 두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권원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국제법적으로도 한국 영토이라고 하면서 쓸데없이 다케시마에 상륙을 거듭하여 국민을 부추기는 행위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며, 일한 양국의 국민 감정을 손상시키고 귀국의 영예스러운 발전을 저해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케시마에 상륙한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다케시마가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 역사적 근거 및 국제법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기

1. 한국측은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왔다” 고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근거 및 사료는 무엇인가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한국측은 “한국이 다케시마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 온 역사적 사실은 한국의 관찬 문헌이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증명하는 문헌이 무엇인가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한국측은 “1905 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다케시마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 년 ‘태정관 지령’ 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태정관 지령’ 에서 ‘다케시마외 일섬(竹島外一島)’ 으로 기술된 섬은 이후 일본에서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 역사적 경위 및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4. 한국측은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로 돌아왔고, 한국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국제법 근거 및 문서가 무엇인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5. 이상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양국의 국회의원들은 서로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연락기관을 설치할 것을 희망하지만, 그 생각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한국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는 일본과 귀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서 오랜 역사의 교류를 갖고,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도 관계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과거의 불행한 시대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한관계에 있어서 다케시마 영토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근간적(根幹的)이고 주요한 문제이며, 이성적이고 평화적인 외교을 통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면서 영국의 번영과 공존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한국 국민의 리더로서 꼭 우리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질의문은 공연히 마찰이나 대립을 부추기려는 마음에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원래 다케시마 영토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입장 차이는 정부는 물론이고 양국국민간에 냉정하게 또한 건설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토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 질의문이 양국의 확고하고 진정한 우정의 확립을 위해 서로 논의할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